

달리지는 이혼 풍속도

① 기획취재

“새삼 방해된다 아이 네가 키워”

20~30대 젊은층 떠남기기 사해 급증
부모 이기심에 ‘갈곳없는 아이’ 많아

결혼생활 5년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김모(34·포천시)씨는 자녀양육권 문제를 놓고 남편과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2살된 아들을 딸아 키우기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새 삶을 즐기고 싶은 김씨는 자녀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혼을 준비 중인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자녀를 키워야 한다’며 애들을 김씨에게 떠넘기려 했기때문이다.

결국 판사로부터 아들을 포스티 홀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은 두사람은 수개월씩 번갈아가오는 것으로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다.

결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모(26·몬트레이파크)씨. 극심한 성격차이로 고민하다 부인과 지난해 말 이혼하기로 합의했

다. 그러나 갖 돌이 지난 딸이 문제. 이씨는 당초 아내가 애를 키우겠다고 고집할줄 알았는데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며 의외로 쉽게 양육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딸기로 했다.

최근 한인사회의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자녀양육권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

이혼후 서로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고 법정싸움을 벌이하던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기현상이 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성장한 20~3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애미카 김 변호사는 “재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혼 후 아이들을 맡지 않으려는 한인들의 이혼 케이스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자녀양육을 원치않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직접 키우겠다는 남자들이 증가했다”라고 최근의 추세를 전했다.

신혜원 변호사는 “이혼 케이스의 40% 정도는 남자가 양육권을 요구한다”며 “이중 일부는 비싼 양육비를 지급하니 이에 직접 키우겠다는 경제적 이유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별국의 경우 부권이 강해 여성이 자녀양육권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주를 이루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가정상담소의 장수경 소장은 “젊은 세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같은 현상은 자녀들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어쩔 수없이 이혼하더라도 이기심때문에 양육을 서로 미루고 자녀들이 갈곳을 잃게 만드는 이중 비행은 막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yha@ioonganusa.com>

한인 하루 2~3쌍이 ‘남남’

LA커운티 법원 통계

한인사회의 이혼은 위함수의 1/3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 말 분보기 LA커운티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케이스를 살펴볼 때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커플이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2001년 9월 92쌍, 10월 78쌍 등 두

달 동안 170쌍이 이혼, 한달 평균 90쌍의 이혼율을 보였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올 초 발표한 통계자료에도 이혼에 관한 상담 및 문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이혼관련 상담은 17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15.4%를 차지했다. 관계자들은 테면 이후에도 이혼 상담건수가 하루 평균 2~3건에 이르는 등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1년 한 해 동안 분국내 호적과 법적 문제 정리 등을 목적으로 LA총영사관에 접수된 이혼신고는 총 66건. 이는 혼인신고(57건) 보다 15% 많은 수치다.

TODAY Since 1995
Tel. 818-762-8311
11239 Van Nuys Bl. Studio City, CA 91604

한인타운 10년거리 정통 음식부채 컨설팅
투데이 세미나
신선한 해산물의 전미를
가득 들과 마실것 즐기십시오